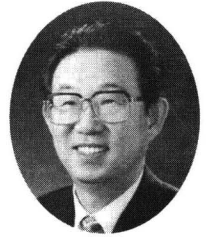


産業醫學의 할아버지 Imhotep



부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김 돈 군

고대사(古代史)라는 말에서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건국(建國) 신화(神話)들일 것이다. 단군(檀君) 할아버지, 고주몽(高周蒙), 박혁거세(朴赫居世) 등은 모두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지만 이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김부식(金富軾)이 지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一然)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와 같은 문헌(文獻)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인 기원전(紀元前) 2780년 경의 醫師인 ‘Imhotep’는 ‘Edwin Smith Papyrus’라는 문헌(文獻)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원히

무덤속에 묻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Papyrus는 기원전 1550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 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1862년 유명한 도굴범(盜掘犯)이 옛날의 이집트 수도였던 Thebes의 바위 동굴(洞窟)에서 이 Papyrus를 도굴하였는데 이것을 영국의 이집트 학자인 Edwin Smith(1822-1906)가 구입하였다고 한다. Smith가 사망하자 그의 딸이 이 문헌을 뉴욕 역사학회에 기증하였고, 현재는 뉴욕 의학 아카데미(New York Medical Academy)에 내장(內藏)되어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 Papyrus가 연구되고 판독되어 Imhotep는 마침내 이 세

상의 빛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이집트에서 발견된 Papyrus 중에서 의학으로 유명한 것은 에베루스 파피루스이지만 Edwin Smith Papyrus에는 Imhotep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Imhotep는 고대 이집트 왕국의 수도인 Memphis에 살았는데 제3 王朝의 1대 왕인 Zoser의 재상(宰相)이었고 점성가(占星家), 제사장(祭司長), Sakkara의 계단 피라밋 건설 기술자 그리고 외과 의사였다고 한다(당시 이집트에는 의사의 분업화가 철저하여 오늘 날의 우리나라 의료제도처럼 각과 전문의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의 사생관(死生觀)은 중국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있어 죽으면 저 세상에서 새

로운 생활이 시작되며, 현재의 삶은 짧지만 사후의 생활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에서는 비나 해를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허름한 집일지라도 영원히 살아야 할 집인 무덤만은 바위로 구축된 석조물(石造物)로 하는 것이 당시 이집트의 인습이었다고 한다.

최초에는 귀족들이 직사각(直四角) 장방형(長方形)의 상부 구조를 갖는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이 마치 벤치를 닮았다고 하여 아라비아어로 벤치를 뜻하는 'Mastaba'란 말을 따서 'Mastaba 고분군(古墳群)'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집트 고대 왕국 임금들의 무덤은 Pyramid 식이었지만 귀족들은 Mastaba 식 무덤을 만들었다고 한다. Imhotep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을 위해 옛부터 전래되어 온 직사각 장방형의 Mastaba를 조성 하였으나 임금은 가능하면 자기 무덤의 높이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기를 바라고 있어 그의 뜻을 받들어 여러 번에 걸친 설계 변경을 하여 무덤의 높이는 60m, 기저부(基底部)는 140m×128m의 이집트 최초의 계단식 Pyramid를 건조하였다고 한다. 이 Pyramid를 중심으로 하여 북쪽에는 장제전(葬祭殿)을 건조하고, 동쪽에는

세드제 의식(儀式)을 할 수 있는 신전(神殿)과 중정(中庭), 남쪽에는 제단이 있는 대중정(大衆庭)을 축조하였는데 이것들을 모두 둘러서 쌓은 주벽의 길이는 동서277m, 남북 545m에 이르러 있으며 현재 이집트 Sakkara에 있는 계단식 Pyramid 로서는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옛날 임금들의 영화(榮華)의 상징인 무덤을 건설하는데는 석재 운반을 위한 도로 건설에 10년, Pyramid 축조에 20년 등 총 30년이 소요되었고 이것에 동원된 인원도 10만명으로 이들이 3개월 동안 교대 작업을 하여 건설하였다고 한다.

Imhotep는 그 당시 반인 반신(半人半神)의 의사(醫師)로서 존경을 받았다고 하니 Pyramid를 건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다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하고 치료 하였는지를 짐작할만하며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관찰과 기록들이 후에 'Edwin Smith Papyrus'의 기초 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Papyrus는 4.5m가 넘는 두루 마리의 양면에 내용이 쓰여져 있고 표(表)에는 머리, 턱, 팔, 가슴, 어깨, 척추의 외상과 재해상 등 48증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증례중 마지막 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목: 척추 염좌에 관한 처방

검사: 척추 염좌를 검사하려면 환자에게 누운 자세에서 양다리를 폈다 굽히도록 하라.

환자가 양다리를 펴지만 통증때문에 곧 다리를 구부리면 척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단: 환자에게는 척추에 염좌가 있으나 가벼운 질환이므로 곧 치료 될 것이라고 말하라.

치료: (치료방법에 관한 것은 Papyrus가 절단되어 상실됨으로 인해 어떤 치료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직업으로 인한 재해성 질환의 최초 기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Edwin Smith Papyrus'를 최초의 산업재해 교과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Ramazzini'를 '산업의학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Imhotep'는 '산업의학의 할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